科学技術振興은 그의 信念

憲法에 条文新設·科総会舘新築도 支援

金 東 一
(理博·科総常任顧問)

学術活動 風土造成

祖国의 近代化에의 科学技術의 振興이 最大重点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故朴正熙대통령이 5·16 革命当初부터의 信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이 信念은 革命直后制定된 第3共和国 憲法에 前例없이 科学技術 振興에 関한 条文이 新設 挿入되었다는 事実에서 엿볼 수 있다. 全憲法 第123条는 다음과 같은 文句로 되어 있다. 即

① 国民経済와 이를 위한 科学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

② 大統領은 経済·科学技術의 暢達·振興을위하여 必要한 諮問機関을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것이다.

本憲法 制定当時의 消息通에 依하면 이 科学技術 条項은 起草委員의 草案에는 들어있지 않았던것인데 대통령의 特命에 依하여 挿入하기로 決定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때 우리 科学技術界에서는 대통령의 卓越하신 識見과 抱負에 対하여 크게 感激함을 禁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想起되는 것은 8·15 解放直后 過渡政府가 大韓民国 憲法을 制定할 当時의 일이다. 그때 筆者는 某先輩의 当付도 있었기 때문에 当時의 憲法 起草委員이었던 某氏를 찾아가서 우리나라의落后된 科学技術을 発展시키기 為하여는 憲法에 科学技術条項을 挿入하여야한다는 것을 力説한바 있었으나 「科学技術은 一般 文化에 包含되는 것」이므로 그럴 必要가 없다고 한마디로 拒否当했던 것이다. 이것을 想起할 때 대통령에 対한 筆者의 感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5·16 革命以来 経済開発 5個年計画에는 科学技術 開発5個年 計画이 반드시 別途로 뒤따르게 되고 科学技術 振興法이 制定되여 科学技術処의 誕生과 아울러 科学基金이 設置되고 科学技術振興에 対한 政府投資가 해마다 増加하는等 科学技術 政策이 制度化되어 오늘의 盛況을 이루게 된것도 그 根源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主導下에서 制定된 科学技術에 関한 憲法

精神에 基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科学技術의 振興에는 이를 為한 社会의 風土造成이 時急함을 力説한바 있었다. 1967年 대통령께서 直接 設立者가 되어 創設한 財団法人 韓国科学技術後援会의 設立趣旨文中에서 「(前略)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科学技術을 賤視하고 等閑視하는 環境속에서 살아왔읍니다. 비록 한때 世界最初의 金属活字를 만들어 優秀한 科学技術의 進境을 보였던 歷史의 記録도 있읍니다만 非科学的인 因襲과 社会風潮가 그 継続的인 発展을 沮害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할것도 없이 科学者와 技術者의 研究와 発明은 한나라의 産業과 経済의 発展을 促進하고 또 熾烈한 国際競争속에서 民族의 力量을 誇示할 수 있는 国力의 尺度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速히 科学技術을 振興시켜야 하겠읍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科学者 技術者를 優待하고 우리 生活의 구석 구석까지 科学技術이 스며드는 社会風土의 造成이 時急합니다」(中略) 科学技術後援会를 設立하는뜻이 여기에 있으며 이로써 훌륭한 科学者 技術者를 挙国的으로 기르고 이들을 받드는 科学하는 国民, 科学하는 나라의 姿勢를 갖추고자 합니다(以下略)」고 말하고 親書를 経済界 有力人士들에게 보내어 同後援會基金 造成에 協助를 当付하였다.

이 글에서 대통령의 社会風土 造成의 높은 뜻이 대통령 特有의 平易한 語調를 잘 表現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趣旨로서 発足한 韓国科学 技術後援会는 그后 韓国科学技術振興財団으로 改編되어 有功科学技術者支援, 奨学金支援(精密 工業技術対象),科学時代誌普及및 어린이 科学文庫発刊, 生活科学講座開催, 科学映画 및 필름라이브러리事業等의 科学技術 風土造成事業을 多彩롭게 実施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66年 3月 発明의 날을 期하여 科学技術의 振興을 為한 対政府 建議案의 採択, 科学技術有功者에 対한 科学技術賞의 施賞 및 科学技術界의 総和団結 等을 趣旨로 삼아 서울市民会舘에서 開催 되었던 第1回 全国科学技術者 大会에는 대통령께서 直接 来臨해서 科学技術界의 士気를 昂揚하여 주었고 同年 12月에는 前記 大会에서의 決議에 依하여 同年 9月에 創立된 韓国科学技術団体総聯合会(略称：科総)의 会長団一同(会長：金允基, 副会長：権寧大, 金海琳, 金浩植, 明柱完, 筆者)을 青瓦台에서 接見하였었다. 이 席上에서 대통령께서 「協會로서의 当面한 隘路가 무었이냐」고 下問하였을때 金允基会長이 미리 準備하였던 科学技術会舘 建立案을 説明하였던바 대통령께서는 即席에서 「会舘垈地를 求하는것이 先決問題일 것인데 垈地가 決定되는대로 내가 千先 3千万원을 마련해 줄터이니 積極 推進하라」는 고마운 지시를 했었다.

이 지시에 우리들은 勇気百倍하여 1967年度를 同会舘建立推進의 해로 定하고 垈地物色에 着手하였던 것이다. 그后 会舘의 建立에는 垈地의 物色을 비롯하여 資金調達 其他에 많은 迂餘曲折이 있기는 하였으나 1977年 드디어 竣工을 보게됨과 아울러 科総이 今日 名実共히 韓国科学技術 民間活動의 総本山으로까지 発展하게 된 裏面에는 대통령의 위와 같은 格別한 配慮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2年부터 科総이 自発的으로 創設하고, 運営하고 있는 새마을 技術奉仕団의 活動도 閣下의 格別한 奨励로 因하여 해마다 活動領域이 拡大深化되어 가고있다.

이 事業은 全国의 科学技術者들이 餘力을 利用하여 内務部主管으로 挙国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새마을 事業에 対하여 農漁村의 所得増大를 為한 技術指導를 側面的으로 支援함과 아울러 대통령이 強調한 全国民 生活의 科学化에 犠牲的으로 奉仕하고 있는것인데 創団以来 今年 6月末現在로 이 活動에 참여하고있는 団員의 数는 教授 1,149名, 教員 193名을 包含하여 1,500餘名에 達하고 있으며 취약기술 指導 300마을, 低所得마을 結緣 212마을에 対한 現

地技術指導, 短期営農学校 運営, 技術指導用 資料의 発刊과 普及, 映画 및 슬라이드의 製作, 매스콤을 通한 技術指導 成功事例発表会等 多角的인 活動이 漸次로 深化되어 가고 있다.

全国民의 科学化 運動의 必要性은 前記한 科学技術後援会 設立 趣旨文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革命初期부터 強調하여온 바인데 특히 1973年 年頭会見에서 이 運動의 積極的인 推進을 提唱하였고 今年度 2月에도 이를 다시한번 強調한바 있다. 이에 따라 科学技術処에서는 이 運動의 長短期 推進計劃을 세우고 市道促進大会를 開催하는等 国民生活의 科学化를 勧奨하는 各種行事를 展開하고 있다.

科総에서는 既述한바와 干今7年前부터 같이 새마을技術奉仕団의 活動을 通하여 農漁民生活의 科学化를 推進하여 왔던 것인데 前記한 대통령의 年頭 強調를 契期로하여 全国的 機構인 全国民科学化運動 推進本部를 科総内에 設置하고 (機構表別添) 科学技術講演会, 科学의 달 綜合行事, 生活科学의 普及, 標語의 懸賞募集, 포스터의 配布, 母校訪問 講演, 団合大会, 定期的 生活講座開設等의 事業計劃을 順次로 実施中에 있고 特히 9月末에는 第1回「서울市民科学의 밤」의 行事를 中央国立劇場에서 開催하는等 150個 傘下会員団体와의 紐帯와 協力을 強化하여 이 運動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던 찰라에 대통령逝去의 悲報를 듣게된 것이다.

以上 列挙한 것 外에도 科学技術의 風土造成과 関聯하여 대통령께서 重点的으로 支援해서 実施하여 온 事業들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가. 科学展覧会의 開催

国民学校와 中·高等学校의 児童, 学生 및 教師의 作品을 主로 하여 毎年 開催하여 온 것인데 해마다 出品作品의 質이 向上되었을 뿐 아니라 出品의 地方 巡廻展示로 因하여 크게 科学普及 効果를 거두고 있다.

나. 国立科学舘의 常設 展示品의 拡充

見学人員이 해마다 増加하여 머지않아 年 50万名을 突破할 것으로 推算되며 等히 今年에 開設된 産業展示舘은 그 規模와 内容으로 보아 技術科学知識普及에 큰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다. 科学技術関係 学会活動의 支援

学会의 活動은 専門分野의 研究開発뿐만 아니라 新技術을 包含하는 各種科学技術의 紹介, 導入과 普及에도 中枢的 役割을 하는 것인데 学会誌発刊事業에 対한 支援과 学術発表会 및 国際会議 参加에 対한 支援이 特히 昨年度부터 大幅的으로 増加되고 있는 것은 科学技術界에 対한 士気昂揚과 아울러 科学技術 風土造成에도 크게 寄与하는 것이다.

라. 海外 韓国人 科学技術者와의 学術交流와 国内参与意識 造成

海外 韓国人 科学技術者의 数는 萬余名에 達할 것으로 推算되는데 1974年부터 年1回式 이들과 国内 科学技術者와의 学術発表大会를 開催하여 学術交流와 아울러 이들의 祖国에 対한 올바른 認識을 提高하며 国内에 対한 奉仕와 参与의 契機를 마련하는데 많은 功献을 하고 있다.

마. 科学技術 用語의 制定, 統一 및 発刊

科総傘下 各学会의 協助를 얻어 理学, 工学, 農学 및 医学의 各分野에서 独自的으로 制定하여온 学術用語를 統一化하고 또 一部를 再制定하여 民間 財団의 協調를 얻어 이미 이를 科学技術用語集 第1輯(理·工·農·薬学部門)과 第2輯(医学部門)으로 나누어 発刊하였고 継続하여 이를 用語를 解説하여 辞典으로 出版하는 事業에 着手하고 있다.

以上은 대통령께서 祖国의 近代化에는 科学技術의 振興이 急先務임을 看破하고 이 뜻을 憲法에 具現하여 科学技術政策을 制度化하고 各種 科学技術振興事業을 奨励하여 展開한 것中에서 科学技術을 為한 社会風土 造成事業의 概要를 적어본 것이다.

바라건대 대통령의 이 賢明하고 卓越한 精神은 새로 制定이 報導되고 있는 第4共和国 憲法에도 継承됨과 아울러 대통령께서 実践한 모든 科学技術 振興事業이 祖国近代化作業의 完成으로 昇華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